

'41세' 전소민, 결혼 전에 2세 포기..."언제 낳아 키우냐"

등록 2026.04.13 00:00:00



[서울=뉴시스] 전소민. (사진 = 유튜브 캡처) 2026.04.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배우 전소민이 자녀 계획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11일 유튜브 채널 "'지편한세상'에는 TV조선 예능 '석삼플레이 시즌1'의 경기도 광주 편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지석진은 "배가 살짝 고프다. 아침 먹었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배우 이상엽은 "아내가 호박죽을 해 줬다"고 답했다.

지석진은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 정말 미인이시다. 아기를 낳으면 정말 귀여울 것 같다"며 자녀 계획에 대해 물었다.

지석진은 전소민에게도 "소민이도 결혼하면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을 거냐"고 질문했다.

전소민은 "전 틀렸다. 저는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이 그냥 행복하게 살 거다. 대를 끊을 것"이라며 "41살인데 언제 낳아서 언제 키우냐. 힘들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